

중소기업 퇴직연금 지원정책이 노후소득수준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
세대별 가설적 위험인구집단 방식을 중심으로

최현대¹⁾ · 박상인²⁾

Choi, Hyuntae · Park, Sangin

[국문초록]

중소기업 퇴직연금 지원정책은 경제적 보상 격차를 완화하여 청년미취업 현상을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퇴직연금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선행연구가 존재하지만, 중소기업 근로자를 주된 분석대상으로 하지 않고 중소기업 퇴직연금 정책을 고려하지 않는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지원정책 시행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를 소득대체율 기준과 사회정의 기준을 통해 세대별로 비교 분석한다. 세대별 가설적 위험 인구집단 방식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퇴직연금은 세대를 막론하고 중소기업 근로자가 상대적 빈곤선을 탈출하는 데 유의미한 제도로 기능함을 확인하였다. 반면 현행 제도에서 1970년생과 1980년생인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액은 적정소득대체율 하한(53%)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정부가 모든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4.17%의 추가 적립액을 보조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적정소득대체율 상한인 71%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2000년생의 경우 거의 모든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액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정의 기준을 통해 살펴볼 때 정책시행에 따라 중소기업 근로자 간 연금급여액 불균형이 악화되었다. 절충안으로 정부가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만 4.17%의 추가 적립액을 보조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적정소득대체율 기준을 충족시키면서도 사회정의 기준을 악화시키지 않는 결과가 나타났다.

주요어: 중소기업 퇴직연금 지원정책, 가설적 위험 인구집단, 노후소득수준, 적정성

1)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과정(주저자), E-mail: chti0265@snu.ac.kr

2)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교신저자), E-mail: sanpark@snu.ac.kr